



## 한국인의 정

라미로 수니가 가리바이

1994년 봄이 오는 3월의 어느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밤에 난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오래 전부터 무척이나 이곳에 오길 고대했기에 가슴 벅찬 기쁨이 몰려왔다. 그렇게 한국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한국의 문화, 처음 알아보는 독특한 냄새,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 생전 처음 맛보는 것들, 이 모두가 나로 하여금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폭 빠져들게 만드는 서곡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 첫 인상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씨였다. 비록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말투와 제스처, 알 수 없는 음성 속에서 뭔가 따뜻함을 읽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내 관심을 끌게 되었고, 지켜야 할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 일이라든가,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일, 물건을 두 손으로 주고받는 일 등 배워야 할 게 너무도 많았지만 어설프게나마 하나하나 똑바로 배워보려고 노력했다.

사실 사람들이 내게 보여준 존중과 예의가 참 인상 깊었는데, 알고 보니 서로에게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제 막 등지를 트게 된 낯선 이곳의 문화에서 나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



었다. 나로선 나이가 인간관계에 장벽으로 여겨지다 보니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이 이곳 문화에서 보다 친근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방해하는 커다란 장벽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에서 동년배라고 부르는 그러한 집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어디에서 왔으며, 그곳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될 가지고 왔나 알고 싶어 하는 모습도 의외였다. 물론 내가 가져온 우리 가족과 친구들 사진, 그리고 그만 두고 온 직장에 대한 추억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사진에 찍힌 옛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곳 친구들이 도리어 의아해 하면서 그건 친구가 아니라 옛 제자일 뿐이라고 말했고, 난 애써 옛 제자들이지만 지금은 친구라고 설명해 주었다. 사람들은 내 말에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건 친구가 아니라 옛 제자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이 같은 작은 에피소

드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한편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들과 우정을 맺는다는 게 결코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당황스럽기도 했다. 어쨌든 이들이 내게 보여준 상냥함과 호기심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자신감을 더해 주었다.

누군가 한국 문화에서는 인간관계가 유교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꽤나 흥미로우면서도 앞으로 내가 직면해나가야 할 그야말로 새로운 정신세계였다. 과연 내가 그것을 체득하고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어쩌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보지도 못한 채 이곳 문화의 변두리에 그저 방관자로 남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이뤄질 수 없는 과정이기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어린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해줬다.

한편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약 2년이 지날 즈음 나는 그간 나의 활동무대였던 서울을 떠나게 되었다. 이 기간에 함께 언어를 배우던 친구들은 서구의 생활방식에 익숙했던 내가 낯선 한국문화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서부터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영어는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 언어학교에서 배운 표현을 떠듬떠듬 말해야만 했다.

나는 도시를 떠나 완전히 풍경이 다른 지방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자 내 오감 속에 시골의 색다른 냄새와 맛과 풍경이 다가왔다. 수도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눴던 따뜻한 관계가 내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었기에 이 모든 일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준비되었다.

물론 우리 문화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긴 하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이 점에 대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어떤 때는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으로



대하는 모습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약간 민망할 때도 있었다. 내가 쇼윈도에 내걸린 사람은 아닌가하고 느낄 때도 있었다. 존경심 이면에 아직은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곳 문화에 잘 적응해나가고자 원하면 원할수록 나도 모르게 얼른 이들의 구성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나의 이국적인 모습을 조금씩 바꿔나갔고, 한국 사람의 일원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다 보니 사람들도 나를 볼 때마다 이전의 낯선 이방인의 모습에 놀라워하던 일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그렇게 우리는 첫 인사말 표현을 넘어 내 생존수준의 필수 단어장이 된 새로운 동사와 구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단어라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문장도 불완전하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말한 표현을 고쳐달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저 미소로 답했다. 존중이 곧 문법을 정복하게 해주었다. 짧은 언어 실력이라 해서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한국문화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천 페이지짜리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그리고 특히 한국인의 ‘정’ 문화에 대해서 말이다.

그 출발은 내가 살던 집의 맞은 편 공원에서 식사 후 소화를 위해 걸 으면서 시작되었다.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은 놀이를 잠시 멈추고선 코쟁 이에다 이상야릇한 냄새를 풍기는 한 외국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 내게로 다가왔다. 그곳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즐겁게 뛰어노는 곳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애정에 대한 나의 첫 교훈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날 처음 보는데도 단지 이상한 억양과 어설픈 단어로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아이들은 나를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었다. 내가 뭔가 틀리면 서로들 낄낄 웃어대면서도 애뜻한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로 잘못을 고쳐주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내가 문법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이 주중에 내게 공터에서 가르쳐준 교훈을 직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때 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여성 친구가 해 준 조언을 기억했다. 아이들과 말해보라는 것. 그 친구는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선생이 될 거라고 말했다. 만일 내가 이해시킬 능력이 없다면 아이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다시 물었다. 그 친구가 몰랐던 사실은 아이들이 인간관계에서도 나의 좋은 스승이 되었다는 점이다.

주말에 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구어체로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언어학교에서는 문법적인 딱딱한 표현만 배웠는데 말이다. 아이들이 야말로 따뜻한 가슴의 언어를 가지고 내게 다가왔다. 난 거기서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말을 애정(afecto)이란 단어로 번역하는 순간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정’은 한국의 문화와 정신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정은 애정이지만, 그 속에 배려가 담겨 있다. 배려 속에 걱정이 있고, 걱정 속에 보살핌과 친근함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한국인의 특징을 말해주는 ‘정’을 가슴으로 느끼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거듭 말하지만, 어떤 단어 하나로 한국어에서 말하는 ‘정’을 이해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정’은 나이의 장벽을 허문다. 가슴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딱딱한 형식을 무너뜨리고, 형식이라는 틀을 벗어나 발전해나간다. 일례로, 그때 아이들은 온통 검디검은 내 긴 수염을 만지고픈 호기심에 차 있었다. 내가 알기론 이곳 문화에서 나이 많은 어른의 수염을 만지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 한 것은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수염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보여준 한수 가르침에 고마워하면서 한편 나이든 어른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가르쳐주고는, 내 수염을 만져보는 것으로 호기심을 만끽하도록 허락해주

었다. 이 같은 단순하면서도 사소한 일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었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덧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지낸 지 5년이 지나 방학을 이용해 우리나라로 돌아갔을 때, 식구와 친구들이 무척이나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식구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자, 날 훤히 꿰뚫어보시는 부모님은 어서 한국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내 눈에서 이미 한국인들의 ‘정’을 느끼셨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나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는데 역시나 이곳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랑과 배려에 그저 감동뿐이었다. 집에 돌아가실 때가 되자 내가 왜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는 것을 행복해 하면서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영원히 못 보게 될지라도 계속 이곳에 눌러 살려고 그러는지를 알 것 같다고 하셨다.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떤 아이들은 벌써 결혼도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로 편지하고,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작별인사차 찾아오고, 휴가 때는 군복을 입고 날 방문하고, 우리의 재회를 축하하기 위해 잔을 함께 나누거나 노래하러 가는 일 등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 이 모든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정’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내가 그곳을 떠난 지 어언 15년이 흘렀다. 하지만 시간도 거리도 결코 우리의 관계를 끝내지 못했다. 난 아직도 그들의 사랑과 애정과 배려와 관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맘껏 즐기며 산다. ‘정’이 우리의 교감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 것이다.

물론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준 내 경험을 전해주고자 일례를 든 것뿐이다. 내가 그때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경험이 다른 곳에서의 삶 속 구석구석에도 되풀이되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온 곳에서는 언제나 한국인의 혼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정’을 느끼며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느낌을 말로써 표현하기란 어렵다. 그것이 비록 어



느 한 민족 고유의 태생적 특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유교문화와 더불어 한국인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발전되어나간 것이리라. 비록 한국문화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 나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이나 문화, 종교, 개개인의 특성과 같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바로 ‘정’이다. 이것이 서로 다른 문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길을 놓아준다.

한국어를 익히고 그 의미를 알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분명한 건 내가 아직 이 언어를 완벽하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이 놀라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사실이다.

[신찬용 옮김]

---

라미로 수니가 가리바이(Ramiro Zúñiga Garivay) — 멕시코 과달루페 선교회 신부  
신찬용 — 평택대학교 평화세계화연구원 교수